
**2017년 제6차
기부심사위원회 회의록**

2017. 7.

**서울혁신기획관
(민관협력담당관)**

「2017년 6차 기부심사위원회」 회의록

〈회의개요〉

- ◆ 일 시 : 2017. 7. 21. (금) 11:00~14:00
- ◆ 장 소 : 신청사 3층 회의실
- ◆ 참석위원
 - 전○○, 문○○, 권 ○, 서○○, 이○○, 남○○, 김○○, 정○○, 전○○
- ◆ 진행순서
 - 위원 소개, 현황 및 안건 설명, 심의 의결, 기타 논의
- ◆ 상정안건
 - 지정기탁금품 접수 결정(7월 접수 건)
- ◆ 회의결과
 - 3개 기관 4개 지정기탁금품 접수 승인 및 기부자 예우

참석자 소개 및 인사

〈 간 사 〉

- 오늘 회의는 시장님, 부시장님께서 일정상으로 ○○○위원장님이 주재하여 안건 심의하고 진행할 계획임. 위원장님 인사 말씀 및 회의진행이 있겠음.

〈 위 원 장 〉

- 제 6회 기부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음. 오늘 심의할 게 4건이 있었는데, 서면심사로 다루기 어려운 건이 있었음. 담당 팀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음.

- △△△△△에 ○○○○○극장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안건이 상정되어.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준 마련이나 더 논의가 필요해서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. ○○○ 팀장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,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과에서 답변해주시겠음.

〈 제안 설명자 〉

- 이번 안건은 총 3개 기관 4건이 있음. ○○○○○에서 10년 동안 매년 ○억씩 기부할 예정이고, 올해 2억 원을 먼저 기부할 예정임. 이 외에 ○○○원 추가로 기부예정이나 기부금품법상 금품만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. 추후 내용이 확정되면 설계 용역 관련 비용은 빼고 금액과 내용이 확정되면 기부심사를 올릴 예정임.

〈 ○○○ 위원 〉

- 기탁자가 정확하게 어느 법인에서 기탁하겠다는 것인지?

〈 제안 설명자 〉

- △△△와 ○○○○○가 5:5로 두 회사에서 기탁함.

〈 ○○○ 위원 〉

- 계열사의 민원이 많아. 어느 회사 장부에서 빠져 나가는지. 주주나 이사회 동의 받았나.

〈 제안 설명자 〉

- ○○○○○ 이사 분들의 의견을 받았고, 포괄적인 협약식을 했음.

< ○○○ 위원 >

- 업무 협약이면 기부심사 아니지 않나?

< 제안 설명자 >

- 업무협약은 포괄적인 협약을 위해 체결하는 것이고, 시에서 금품으로 받고 세입처리하려면 기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.

< 위 원 장 >

- ○○○ 팀장이 연결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겠음.

< 제안 설명자 >

- 제안 설명서는 이미 보셔서, 세부적인 다른 부분을 설명하겠음.
○○○○○와 서울시는 13년도에 포괄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했음.
해마다 △△△△△△△을 5회째 추진하고 있음. △△△△△△△은
○○○○○가 10억 전액 내서 추진하고,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만
하고 있음.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△△공연을 하는 △△△ △△라는
행사를 1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음. 서울시에 지원하는 사업 말고도
다양한 △△사업을 자체적으로 약 40억 상당의 예산으로 실행하
고 있음. △△영재발굴단 등이 연습을 하고 작품 활동하는데 공연
할 데가 많지 않은데, △△△△△에서 많이 공연을 해보다가 공연
시설 등이 많이 낡은 상태를 보고 시설 개선을 제안해 옴. 시설
개선에 000억원 정도 지원하고 매년 2억원씩, 10년간 공연 사
업비에 써달라고 제안이 왔음. ○○○○○○는 순수하게 △△ 사업
에 관심을 갖고 하던 분들이라 흔쾌히 검토해보니 △△대중 활성
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하게 되어서 이렇게 기부심사
를 요청하게 되었음.

< ○○○ 위원 >

○ △△△△△ 예산은?

< 제안 설명자 >

○ 총 15억, 그 중 사업비는 3억 정도 나머지는 인건비, 운영비 등

< ○○○ 위원 >

○ 기부를 받게 되면 1년 예산이 15억에서 줄어드나?

< 제안 설명자 >

○ 예산은 안 줄이고 시설 개선비 000억이랑 공연사업비 2억은 추가 투입돼. ○○○○○에서 제안을 안 했으면 저희가 10년 되어서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산편성을 하려던 차였어. 마침 ○○○○○에서 좋은 제안을 해줬음.

< ○○○ 위원 >

○ △△△△△ 연간 수입이 얼마나 돼?

< 제안 설명자 >

○ 한 6억 정도 됨. □□□□과 합쳐서. □□□□은 아는데 △△△△△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. △△△△△ 인지도가 떨어짐. 올해부터는 청년 △△△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대중에게 많이 알리자. 오히려 ○○○○○와 같이 추진하게 되면 △△△△△가 보다 인지도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음.

< ○○○ 위원 >

- 개보수 총 비용 중 000원이 몇 프로 차지하나?

< 제안 설명자 >

- 한 건적은 00억원 정도 나오는데, 조정하여 필요한 금액 전액임.

< 위 원 장 >

- 안건을 보면서 청년 △△△을 양성하고 △△△△△ 중 특성화하고 좋은 전략인 것 같음. 서울시 시설이 낡았는데 이걸 기부금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예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음.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나?

< 제안 설명자 >

-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데. 저희뿐 아니라 다른 중앙정부에서 하는 타기관 사례를 보면 여러 사례가 있음. 국립극장은 ○○○○에서 25억을 10년간 지원하고 있어. ○○ 토월극장은 150억 20년 지원하고 있어. ○○○○에서 챔버홀을 지원하고 있음.

< ○○○ 위원 >

- 명칭을 그쪽에서 제안했나?

< 제안 설명자 >

- 이런 제안을 받고 000억원이라는 큰 제안을 받고 감사패 등을 생각하다가 그래도 협력해서 13년 동안 해온 게 있는데 예우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음. 기부자 예우 조례가 있어서 명칭을 생각해보게 되었음. △△△△△이라는 고유명사 명칭은 그

대로 두고, 공연장이 하나 있고, 체험실, 카페, △△마당 하나씩 있음. 그냥 공연장에다가 ○○○○○ 극장으로 붙이는 것으로 협의하게 되었음.

〈 ○○○ 위원 〉

○ △△△△△에 공연장이 하나밖에 없지 않나?

〈 제안 설명자 〉

○ △△△△△은 그대로 유지하고, 그 안에 있는 공연장을 ○○○○○ 극장으로 하는 것임.

〈 ○○○ 위원 〉

○ △△△△△은 이사회 있나? 자문회의는?

〈 제안 설명자 〉

○ 운영 이사회는 없고 기획위원회가 있음. 자문회의는 따로 하는 게 있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위원회. 관련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항상 운영하고 있음.

〈 ○○○ 위원 〉

○ △△△△△ 내부에서는 네이밍하는 것은 어떤 의견인가?

〈 제안 설명자 〉

○ △△△△△은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음. 위탁업체로 선정되서

들어오니 음향이 낡아서,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달라고 하던 차였음. △△△△△을 사랑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시설들이나 건물들이 낡은 것보다 음향시설, 조명시설 등 장치들이 낡아서 사용하기 힘들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었음.

〈 ○○○ 위원 〉

- 기부를 받아서 ○○○○○ 이름으로 바꾸겠다고 했을 때 그분들의 반응은?

〈 제안 설명자 〉

- 괜찮다고 하심.

〈 위 원 장 〉

- 문화계는 명칭후원은 관례적으로 많음.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문화예술분야는 많이 하는 편임.

〈 ○○○ 위원 〉

- 제가 기업 CSR 등 분야에 일한 경험으로 기부 기업의 진정성이 없으면 상처를 받을 수 있음. ○○○○○은 10년 정도 기부 하는 것 하고 ○○○○○ 기업 오너가 뜻한 바가 크고 스토리가 강한 것 같음. 본인이 말한 것처럼 △△분야에 꽂힌 부분이 있는 것 같음. 제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다른데 눈치를 보고 가야 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무엇을 생각하고 가야

하는지를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함.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○○○○○극장으로 명명하고 기부를 활성화 시켜주는 쪽을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함. △△△분들 보면 홍보하는 저희들은 감정 이입을 해. 제 생각엔 ○○○○○랑 그 전에 악연이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은 폭이 넓어지고 굉장히 환영해야할 것임.

< 위 원 장 >

- 문화예술쪽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국내에 적음. 이번 기부도 아마 예술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일 것인 판단됨.

< ○○○○ 위 원 >

- 오너리스크는 없다고 보나? 가족 경영이나 그런 것 까지 염두에 뒀야한다고 생각함. 이 이름을 걸었는데 ○○○○○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면 명칭을 뺄 수가 있나?

< 제안 설명자 >

- 네 할 수 있음. 협약을 다시 해서 000원 시설 개선비는 올해 투입되고, 산정되는 물품들은 다시 심의에 올릴 예정임. 매년 받는 2억에 대해 1년이나 2년 뒤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어서,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중단하는 것으로 협약에 명시할 예정임. 계약해서 공증까지 처리할 예정임.

〈 위 원 장 〉

- 제가 문화예술위원회으로 있으면서 경험한 바로, 공공기관의 후원들이 기업들이 안하는 편임. 유럽은 부호들이 예술의 전당 후원하고 그런 게 있어. 인프라에 투자 한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후원으로 볼 수 있음.

〈 제안 설명자 〉

- △△업계가 너무 열악해. △△△들은 거의 정부 지원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. 시민들이 공연을 내돈주고 가는 거라고 생각 안 해서 지원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.

〈 ○○○ 위원 〉

- 논의할 때 네이밍을 제3의 이름은 고려 안했나? 예를 들면 □□□ 극장이라든지

〈 ○○○ 위원 〉

- 전체적으로 안건에 대해서 공감은 되지만 명칭에 있어서 다른 사례를 봐도 KB국민은행청소년하늘극장, IBK챔버홀 CJ토월극장이다. ○○○○○이라고 해서 회사 상호를 써서 좀 그렇다. 다른 이름을 내세우고 브리지를 넣으면 어떠냐?

< ○○○ 위원 >

- 다른 극장 이름을 넣고, ○○○○○가 선사한 거다라고 그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음. △△△인데 하필 ○○○○○ 상호인가. 회사 이름이니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이름을 내세워 브리지를 넣었으면 좋겠음.

< 위 원 장 >

- 이 건은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음.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조금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음.

< ○○○ 위원 >

- 이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회사의 진정성은 맞는데. 시민으로 봤을 때 공공기관 앞에 그런 회사 이름이 붙는 게. 이제는 그런 흐름을 가는구나. 그런 추세구나. 이해는 하지만 그 모습 자체가 좋아 보이지 않아. 환경단체 있으니 국립공원 □□가 많이 도배되어 있어. 이런 흐름으로 가더라도 브리지가 있었으면 좋겠어.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느낌을 줄여주는 게 어떤가. ○○ 극장하면 어떤가.

< ○○○ 위원 >

- 기업 입장에서는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활동할 때 문을 닫는 게 있고 여는 게 있어. ○○○○○는 제게는 어릴 적 기억이 있어

△△과 매칭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. 달는 쪽에서는 간 것 같아. 옛날 서울시 같아. 시민들 입장에서는 홍보 차라리 허락하고 여기에 오히려 어떻게 △△을 활성화 시키고 시민들이 잊혀져 가는 부분에 대해 무리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.

□□□ 기자가 그런 부분을 노력 많이 해. 저는 10년 동안 어떻게 활성화 될 것 인지 생각해보면 나중에 거기에 고맙다고 좋은 쪽으로 될 것 같음. 기왕 기부하고 기분 좋게 주는 것 하고 누더기 주는 것하고 굉장히 달라. 비포앤 에프터에 대해 상대방의 기를 다 죽여 놓고 하라고 하면 그쪽에서 하고 싶지 않아. 회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어 있음. 이런 부분에 대해서..담배나 다른 브랜드가 붙으면 상처가 오지만 이 부분은 긍정적인 느낌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환영함.

< ○○○ 위원 >

- 지원금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게 □□□□는 200억을 냈어. 기업이 자기 이름을 주는 데 몇 백 억을 줘. 공연 극장 기업 이름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어. △△△△은 그렇다 쳐도 □□가 45억임. ○○○○○가 좋은 기업이긴 한데. 더군다나 공연장이 단 하나라 △△△△△과 동일시 되는 곳임.

< 위 원 장 >

- 예술의 전당과 △△△△△은 브랜드파워가 너무 큰 차이가 많아. 예술의 전당이나 주요 공연장의 100퍼센트 예약되는 것이 있어. 매주 찾아보는 곳. △△△△△은 존재 자체가 브랜드 가치가 없을 수 있음.

< ○○○ 위원 >

- 저는 그래도 △△△△△에 2억씩 20억을 줘서 ○○○○○ 명명된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함. 예우도 기술적으로 다른 명칭을 쓴다든가.

< ○○○ 위원 >

- 이름을 합하는 것은 브리지를 넣는 것으로 하고 연구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. 저는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임.

< 제안 설명자 >

- 저희가 이 △△△△△ 기부자를 찾는다고 가정하면 아무도 안왔을 것임. △△△△△ 자체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많음. 저희가 시너지가 나는 입장이라서 ○○○○○○때문에 홍보 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함.

< ○○○ 위원 >

- 이건 효과가 미미하니깐 돈을 넣을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됨. △△이라는 게 지금 선호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 입장에서 돈을 넣을 때는 좋은 뜻에서 하겠지만, 기업의 이미지도 살리겠지만, 명칭 사용가지고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어. 많은 기업이 광고라던가 이미지 살리기 위해 △△에 투자 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다고 하면 모를까. 전무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함. 명칭 사용 부분은 우리들이 정할게 아니고 그쪽에서 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.

〈 제안 설명자 〉

- ○○공원 △△광고 문구 등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생각 안하고 있음. 단지 포스터 나갈 때 ○○○○○극장이 표시 될 수도 있는 정도임. △△△△△ 공연장 특별히 표시할 때만 명시하는 것으로 협의 하고 있어. 그리고 공연장 입구에 명패를 붙일 계획임.

〈 ○○○ 위원 〉

- △△을 위해 쓰는 ○○억에 어울려서 △△△△△은 △△발전에 어울려서 함께 올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.

〈 위 원 장 〉

- 승인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내용들은 좀 보완하도록 하겠음. 나중에 경과나 추가 부분은 물품 기부할 때 논의할 수 있음. 첫 번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된 것으로 넘어감.

〈 제안 설명자 〉

- 보라매병원에 ○○○○에서 저소득층 환자 진료비 지원과 서울장학재단에 ○○○○○와 □□□에서 장학금 지원 관련 기부 내용임.

〈 위 원 장 〉

- 나머지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질의해주길 바람. 이건들은 통례적인

기부심사 안건과 비슷함.

〈 ○○○ 위원 〉

○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나?

〈 제안 설명자 〉

○ 장학재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기업들이 취지에 공감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임.

〈 ○○○ 위원 〉

○ ○○○○가 규모가 큰 데, 갑자기 이렇게 기부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나?

〈 제안 설명자 〉

○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 성금을 모은다든지 각종 이벤트 등으로 지속적으로 기부가 들어오고 있음.

〈 위 원 장 〉

○ 추가적인 의견 있으신가?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음. 수고하셧음.